



인 사

▲ 해양수산부

- 4급이하 전보

· 감사담당관실 이영태, 수산정책실 김인경(11.27)

살아 생전에 꼭 가봐야 할 자전거 여행 52코스



제 목 자전거길 따라 떠나는 우리나라 해안여행  
 가 격 25,000원  
 저 자 농림수산식품부 · 한국어촌어항협회  
 펴낸날 2010년 5월 10일  
 판 형 4×6배판 변형 (188×230) | 울컬러  
 분 량 424쪽  
 분 야 국내도서 > 여행 > 국내여행 > 전국  
 ISBN 978-89-6000-870-0 13980

넥서스BOOKS

(121-840)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4-2 전화 330-5500(대) | 팩스 330-5555  
 (내용 문의) 편집부 양정희 | yjh@nexusbook.com | 330-5516

12월의 크린오션호 및 어항청소선 운항계획

선 명	기 간	지 역(항)	선 장	연 락 처
어항 901호		선박수리	백남춘	011-247-5592
어항 902호		선박점검	이일구	010-7175-5590
어항 903호		선박수리	조동식	011-230-5591
어항 904호		선박수리	황원배	011-232-5596
어항 905호		선박점검	하용만	011-247-5593
어항 906호		선박수리	김성훈	011-247-5594
어항 907호		선박점검	최일선	011-243-5597
크린오션호		선박수리	김용익	011-243-5590
크린오션2호		선박점검	박주종	010-6393-5596

어촌 View Point 100 ⑪ 전남 영광 두우리

천지시방 날뛰는  
 '갯벌 개구리들'과 보낸 하루,  
 영광군 두우리

두우리 저인망 체험 ▶

- CANON EOS 5D MARK II
- 초점거리 35mm
- 8월 17일 pm 5:50
- 촬영모드 P/ISO200
- 셔터스피드 1/400초
- 조리개 F10
- 화이트밸런스 Auto



영광군 염산면에는 이름대로 염전이 많다. 영광의 얼굴이라 할 정도로 유명한 범성포굴비도 염산면 소금이 있어 탄생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염산 어업인들의 주장이다. '일반 갯벌처럼 발이 푹푹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몰고 들어가 시속 70km까지 달릴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한 갯벌' 운운하는 것이 두우리어촌체험마을 홈페이지의 설명인데, 사실이다. 한쪽에는 질척한 갯벌도 있어 체험 어린이들이 뛰어들어 빨투성이가 되는데 이 역시 좋은 모습. 굳이 연출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천연덕스레 '사진스런' 모습을 연출해 준다.

저인망 체험은 보통 썰물 때 진행되니 사전에 물때를 살펴보는 게 좋다. 두우리 어업인들이 먼저 바다 한가운데로 그물을 들고 나가면 손을 맞잡은 어린이들이 발을 맞춰 첨벙대며 물고기를 몰아온다. 이때가 촬영 찬스. 빠른 셔터스피드를 위해 감도를 ISO200에 맞췄다. 카메라와 렌즈에 바닷물, 특히 빨물은 금물. 주방용 랍을 이용해 보디와 렌즈를 휘감아 보호하는 게 좋다. 빨 섞인 바닷물 위에 반사되는 황금빛 역광, 35mm 렌즈로 몰려오는 어린이들을 실루엣으로 촬영했다. 프로그램 촬영(P)인데 조리개 수치는 F10.

여기도 좋아요! 국도 77호선을 연결하는 영광군도 14호선, 백수해안도 드라이브가 연중 인기다.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 중 9번째로 뽑힌 아름다운 해안 길. 총 길이 16.8km, 길을 따라가다 보면 곳곳이 절경이니 눈이 심심하지 않다. 설도항은 매주 토요일터가 열려 싱싱한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

신나게 즐겁게! 두우리어촌체험마을의 갯벌 체험과 염전체험을 추천한다. 두우리의 질 좋은 갯벌에서는 귀한 백합도 드물지 않게 잡힌다. 맛조개는 지천. 갯벌을 호미로 파기만 하면 조개가 줄줄이 걸려 나온다는 자랑이다. 두우리 갯벌 근처에는 일명 백바위로 불리는 두우리해수욕장도 있어 촬영을 겸한 여름여행에 최적이다.

배꼽시계 꼬르륵! 두우리어촌체험마을에서 추천하는 집은 마을 어업인이 직영하는 두우리갯벌가든(061-352-9593). 두우리 갯벌낙지와 병어회, 서대회무침이 대표 메뉴다. 두우리 갯벌에서 잡은 백합으로 끓여낸 죽도 저렴하고 맛있다.

쉬어 가고 싶을때! 두우리어촌체험마을 홈페이지에서 추천하는 어업인직영 민박집은 두우리 갯벌 민박(061-352-9593)과 꽃동네 민박(061-352-9984)이다. 대식구인 경우에는 펜션형 민박인 두리펜션(010-9166-0818 / 수용인원 44명)이 적당하다.



▲ 백수해안도로 해안산책로



▲ 염전체험



▲ 어린이 망둥어 낚시체험



▲ 어업인들의 실뱀장어잡이 그물